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오주연<sup>1</sup>, 서우종<sup>2\*</sup>

<sup>1</sup>인하대학교 융합보안e거버넌스센터 수석연구원, <sup>2</sup>인하대학교 산업보안거버넌스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Patients

Juyeon Oh<sup>1</sup>, Woojong Suh<sup>2\*</sup>

<sup>1</sup>Principal Research Engineer, Center for Security Convergence & eGovernance, Inha University

<sup>2</sup>Professor, Program in Industrial Security Governance, Inha University

요 약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험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용성의 개념을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594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향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정보공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코로나19, 재난, 개인정보 공개, 사회적 수용성, 개인적 수용성

Abstract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VID–19, our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pread of the damage due to confirmed patients who have a negative or un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that can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onfirmed COVID–19 patie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concept of acceptability into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and statistically verified their relationship with influential factors. In this study, 594 cases of data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reat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ower the awareness of the risk, the higher the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patients. In addition, the greater the recognition of the ut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personal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development to create a more mature social atmosphere to reduce the public's reluctance to disclose information not only in COVID–19 but also in new disaster situa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 COVID–19, Disaste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ocial Acceptability, Personal Acceptability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1234).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Woojong Suh(wjsuh@inha.ac.kr)

Received August 20,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8,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코로나19(COVID-19)는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증후군으로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감염에 의해 발생된다. 잠복기는 1~14일(평균 5~7일)일로 감염자의 비말에 의한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전세계 치명률은 0.1~25%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국가·나이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재난관리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과 영업장을 대상으로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작성 또는 QR 코드 인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QR코드 데이터 사용이 총 1억 4574만 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하는 메뉴얼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1]. 실제 수기로 작성된 출입명부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의 허술한 관리가 2020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성명을 제외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2].

또한, 지난 2020년 4월 한국정부는 앞서 언급한 사례인 코로나 19의 대응전략 중 하나로 확진자 동선추천시스템을 외신에 공개하였는데[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취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10분 내로 수집한다. 기존의 방식은 역학조사관이 관계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취합하고 동선을 일일이 수기로 분석해야 하지만 이 동선역학조사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매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활용하여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정보 오용을 막기 위하여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반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3]. 이러한 보안 시

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기술 모델은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가명처리(pseudonymised process), 개별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고 데이터의 총합만 보여주는 집계처리(agggregation)와 같이 주로 비식별화 기술에 초점을 맞춰 제시되어 왔다[4].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해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피해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던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다. 대표적으로 인천의 학원 강사 사건[5,6] 신천지 대구교인 사건[7], 목사부부 사건[8], 인천의 경찰관 사건[9]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자기 자신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 수용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구성원들이 정부정책을 따르는 데에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 또는 다른 사회구성원들 전체를 위한 이점이나 혜택과 같은 당위성의 관점도 고려한다[10,11]. 이러한 관점에서의 수용성이 사회적 수용성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코로나19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민감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수용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대상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성을 사회적, 개인적 수용성 차원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서, 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보공개 수용성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모형과 가설

###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성을 사회적, 개인적 수용성 차원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이러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개인정보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와 같은 원인 요인들과 더불어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결과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2.2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 그리고 수용성

신뢰는 “자신의 의도 또는 가치가 타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타인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12]. 이러한 신뢰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경영학 영역에서도 신뢰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신뢰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13], 사람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14]. 행정학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15].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16], 주로 정부성과, 정부역량 및 역할 등과 관련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17-19]. 구체적으로 정부의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토대로 정부신뢰를 정의하거나[20], 정부의 역량이나 역할의 개념으로 정부신뢰를 정의한다[17,21]. 최진식, 강영철(2012)은 정부신뢰를 신뢰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 기초한 신뢰(relation-based trust), 신뢰 대상인 정부의 역할에 기초한 신뢰(role-based trust) 2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22]. 이러한 신뢰는 장기적으로 정부에 대한 만족/불만족과 관련되어 있으며[23,24].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25-27].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정부의 역량에 기초한 신뢰로 개념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를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8]. 이러한 신뢰는 기술이 사회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이해되고 있으며[29], 많은 연구가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0-3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을 것이다.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사람들이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4].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이를 많은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또는 정부는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가능성은 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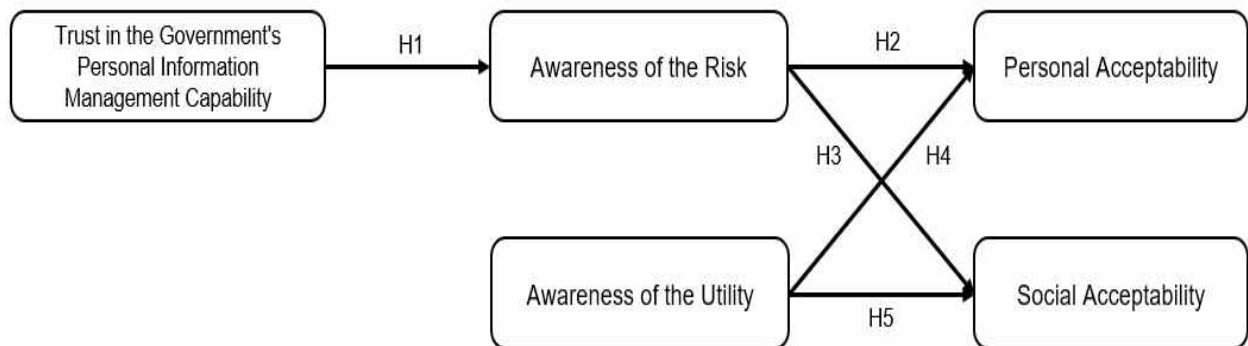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커지고 있다[35].

수용성(acceptability)은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외적 가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36],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성은 개인정보 공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용성은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37].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나 정책에 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파악하는 행위이고, 어떤 시설의 정책이 본인의 지역에 들어오거나 적용되는 것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은 개인적 수용성을 파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사회적 수용성으로 정의하였고,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부 입장을 개인적 수용성으로 정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 즉 사회적 수용성은 높다 할지라도, 개인적 수용성도 언제나 높은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20년 5월 확진자로 판명된 인천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및 동선 등 정보를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키고[5,6], 2020년 3월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사건[7] 등을 볼 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적 수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원자력 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원자력 시설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 시설이나 정책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38-41].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 결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원전에 대한 지각된 편익이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적되기도 하였다[42]. 이와 같은 학술적 연구들을 볼 때, 사회적 당위성이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적 입장, 즉 개인적 수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 2.3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 인식 그리고 수용성

국민들은 원전으로 얻는 효용을 높게 인지하면 원자력 수용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43,44], 효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였다[44].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효용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달라지며,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해당시설에 대한 수용성도 달라진다[11,41,46].

또한, 다른 연구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식, 비용·편익요인을 분석하였다[11].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수용성에 인식된 경제적 혜택 요인이 위험 인식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 인식이 너무 높아 주민들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수용성은 주민들이 인지하는 혜택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10]. 다시 말하면, 인식위험은 매우 큰 혜택으로 상쇄될 수 있어, 국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가설 5: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기존연구들[46,47]에 따라 '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생

각한다' 로 측정하였다. 또한, '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질병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관·폐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를 연구자에 의하여 추가되어 측정하였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존연구들[47,49]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나는 정부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확실성/불안정성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부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에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이 수반된다고 생각한다'로 측정하였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 인식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가 질병 관리에 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존연구들[11,38,50-52]을 토대로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는 효율적인 질병관리방법이라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는 확진자 추적 등 질병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로 측정하였다.

개인적 수용성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개인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는 위험을 개인이 인식의 공유 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존연구들[30,48,53,54]에 따라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 나의 개인정보 공개를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 나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 나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 시 동의할 의도가 있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위한 설문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됐다.

사회적 수용성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는 위험을 사회구성원이 인식의 공유 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존연구들[11,55-57]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측정하였다.

###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0일에서 17일까지 온라인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총 61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17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5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수집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288명(48.5%), 여성은 168명(51.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은 10대 이하가 5명(0.8%), 20대가 124명(20.9%), 30대가 146명(24.6%), 40대가 155명(26.1%), 50대 이상이 164명(27.6%)으로 1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대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학력은 고졸 이하 101명(17.0%), 전문학사/학사가 375명(63.1%), 석사가 111명(18.7%), 박사가 7명(1.2%)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39명(6.6%), 경기도 44명(7.4%), 인천광역시 32명(5.4%), 강원도 31명(5.2%), 세종특별자치시 34명(5.7%), 대전광역시 36명(6.1%), 충청북도 31명(6.6%), 충청남도 35명(5.9%), 광주광역시 37명(6.2%), 전라북도 34명(5.7%), 전라남도 36명(6.1%), 경상북도 35명(5.9%), 대구광역시 35명(5.9%), 부산광역시 35명(6.1%), 울산광역시 36명(6.1%), 제주특별자치도 31명(5.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의 경우 사무직이 145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80명(13.5%), 학생 50명(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금액의 경우 200만원~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가 148명(24.9%)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ies		Frequency	Ratio(%)
Sex	Male	288	48.5
	Female	306	51.5
Age	Under 20	5	0.8
	20's	124	20.9
	30's	146	24.6
	40's	155	26.1
	Over 50's	164	27.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01	17.0

	Professional Bachelor/Bachelor	375	63.1
	Master	111	18.7
	Doctor	7	1.2
Residence	Seoul	39	6.6
	Gyeonggi-do	44	7.4
	Incheon	32	5.4
	Gangwon-do	31	5.2
	Sejong	34	5.7
	Daejeon	36	6.1
	Chung-cheong bukdo	31	5.2
	Chungcheongnam-do	35	5.9
	Gwangju	37	6.2
	Jeollabuk do	34	5.7
	Jeollanam-do	36	6.1
	Gyeongsangbuk-do	35	5.9
	Gyeongsangnam-do	33	5.6
	Daegu	35	5.9
	Busan	35	5.9
	Ulsan	36	6.1
Jeju	31	5.2	
Job	Farmer	6	1.0
	Official	48	8.1
	Teacher/Instructor	25	4.2
	Profession	49	8.2
	Management position	6	1.0
	Office worker	145	24.4
	Production/Labor	43	7.2
	Service/Sales	35	5.9
	Self-employment	26	4.4
	Freelancer	30	5.1
	Housewife	80	13.5
	Student	50	8.4
	inoccupation	46	7.7
Others	5	0.8	
Monthly income	No income	93	15.7
	Under 1 Million won	45	7.6
	1 ~ 2 Million won	86	14.5
	2 ~ 3 Million won	148	24.9
	3 ~ 4 Million won	111	18.7
	4 ~ 5 Million won	50	8.4
Over 5 Million won	61	10.3	

####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PLS-SEM(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PLS-SEM 기법은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

정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가 크지 않거나, 정규분포를 형성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탐색적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58,59]. 또한, 반영적(reflective) 측정모델 뿐만 아니라 형성적(formative) 측정모델도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60].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SmartPLS 3.0을 사용하였다.

#### 4.1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를 위해 측정변수 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개념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크론바흐알파값(Cronbach's alpha)과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측정도구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두 지표의 값들이 모두 0.7 이상이 되어야 한다[64].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크론바흐알파값의 최소값은 0.900로 나타났으며, 복합신뢰도의 최소값은 0.93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당성은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개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47].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과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적재값들이 0.7 이상이 되어야 한다[61].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요인적재값의 최소값이 0.848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의 값을 가지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3]. 본 연구에서는 AVE값의 최소값이 0.800으로 나타나, AVE 지표를 통해서도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커야 한다[58].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들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2,63].

#### 4.2 구조모형 분석

먼저,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종속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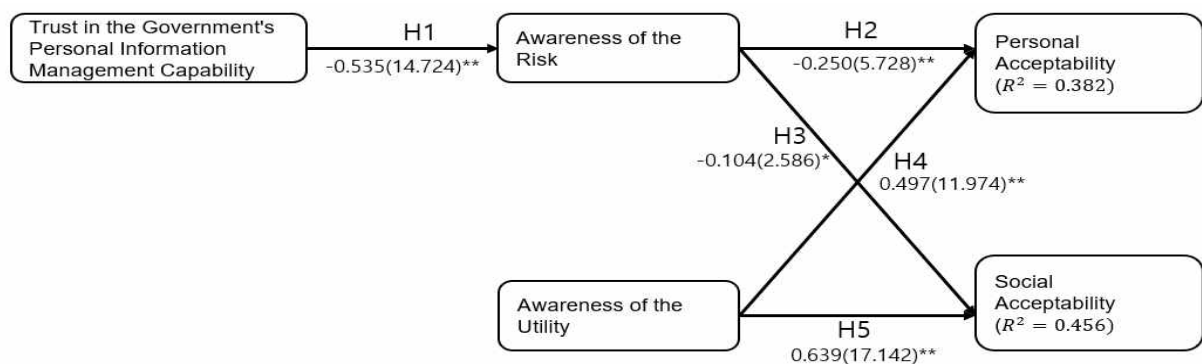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Constructs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Personal Acceptability (PA)	PA1	Consent to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0.949	0.901	0.965	0.945
	PA2	Whether you inten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0.957			
	PA3	Consent when requeste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0.943			
Social Acceptability (SA)	SA1	The need for sufficient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0.896	0.800	0.941	0.917
	SA2	The need to disclose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0.848			
	SA3	The need for continuou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0.916			
	SA4	The nee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patients in the future	0.916			
Trust in the Government'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GT)	GT1	Trust in the transparenc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0.930	0.836	0.953	0.935
	GT2	Trust in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0.928			
	GT3	Trust in the efficienc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0.903			
	GT4	Trust in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is stored and disposed of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uidelines	0.897			
Awareness of the Risk (AR)	AR1	Insecurity in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0.881	0.815	0.957	0.943
	AR2	Possibility of lo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0.910			
	AR3	Uncertainty/inst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0.915			
	AR4	Possibility of unexpected problems	0.897			
	AR5	Risk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0.911			
Awareness of the Utility(AU)	AU1	Efficiency as a disease control method	0.919	0.834	0.938	0.900
	AU2	Helping to ensure a safe life for the people	0.928			
	AU3	Helps in disease management	0.892			

Table 3. Results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PA	SA	GT	AR	AU
PA	<b>0.949</b>				
SA	0.655	<b>0.895</b>			
GT	0.479	0.461	<b>0.914</b>		
AR	-0.395	-0.291	-0.535	<b>0.903</b>	
AU	0.570	0.668	0.472	-0.293	<b>0.913</b>

Note) Bold numbers on the diagonal are the square roots of AVE.



Note) \* p < 0.05, \*\* p < 0.01, N=594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에 대한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해  $R^2$ 을 확인하였다. 설명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을수록 그 모형은 예측 정확성이 높아서 모형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5].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의  $R^2$ 의 값이 0.1 이상일 경우, 예측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64].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R^2$ 값이 각각 0.382, 0.456으로 나타나, 예측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구조모형의 가설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리샘플링 5000회)을 수행하여 t-값을 산출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14.724, p<0.01$ ). 즉,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 t=5.728, p<0.01; H3: t=2.586, p<0.01$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지면, 위험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2와 H3은 채택되었다.

가설 H4, H5를 보면, 효용 인식이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H4: t=11.974, p<0.01; H5: t=17.142, p<0.01$ ), 이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 인식이 높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와 H5는 채택되었다.

## 5. 토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사회적 재난을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를 통제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의 신상 정보 및 행위 정보를 거짓으로 밝히거나 누락하는 바람에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관점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질병 통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공개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에는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공개 수용성 인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또는 지인들의 부정적 반응이나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때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확진자 개인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치료 이후 직장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와 직장 및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홍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견고하게 조성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효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유용하다는 인식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에 대해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공개가 코로나19 대응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는 확진자 추적 등을 통한 질병확산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기본적인 질병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결국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수용성 개념을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통계적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수용성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개념으로 측정된 반면, 개인적 수용성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 수용성 변수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 공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 모두로부터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수용성의 경우 사회적 수용성에 비해 위험성에 더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만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이기적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개인정보 공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인적 수용성보다 사회적 수용성에 더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효용성의 개념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해석은 정부가 향후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수용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개인정보 공개의 효용성 제고보다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정부

대응에 협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정부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정보 공개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6. 결론

본 연구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다룬 초기 연구라는 점이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수용성 연구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38-41,43] 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10,11]과 같은 사회적 시설을 대상으로 개인의 판단이나 주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과 같은 대상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피해를 경험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가 있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국적이고 그 심각성이 지대한 재난을 대상으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수용성의 개념을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의 개념으로 세분화해서 보다 인간의 양면적 특성을 직시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보니,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판단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양면적 특성을 구별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충실한 통찰력 있는 접근과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한 연구모델은 코로나19 상황에 국한하여 분석되었기 때문에, 모든 재난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재난 상황에 대해 적용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써,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결과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지 보다 일반화된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 개념과 관련하여 각각에 필요성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두 개념 간의 인과관계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 두 가지 수용성 간의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이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이론적 근거들을 확보하는 가운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절변수로는 이슈나 재난 상황 자체의 속성, 응답자가 속한 사회적 환경 특성, 응답자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흥미롭고 유용한 연구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S. H. Shin. (October 7, 2020). [2020 parliamentary inspection] Use 140 Million QR Codes related to COVID-19... "Management Manual Insufficient". Aju Business Daily.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7102419851>
- [2] D. H. Park. (October 7, 2020). "Discovered the Entry and Exit List in Junk shop.". Trying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But Personal Information is Spreading. Seoul Economic Daily. <https://sedaily.com/NewsView/1Z91G99CAH>
- [3] J. S. Yoon. (April 10, 2020). Track Confirmed person's Movements in 10 minutes. COVID-19 Epidemiological Survey System Noted by the World. Yonhap News Agency.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149400003?section=search>
- [4] I. H. Lee, W. Song & J. Y. Lee. (2016). Aggregation-induced Emission Type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t Materials for High Efficiency in Non-dop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rganic Electronics*, 29(2), 22-26. DOI : 0.1016/j.orgel.2015.11.019.
- [5] H. K. Son. (July 20, 2020). Incheon Academy Instructor Arrested for 7th Infection... "Lying in Shock". Yonhap News Agenc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30451065>
- [6] H. K. Son. (September 15, 2020). 'Lie' Tears of Regret from Incheon Academy Instructor... Two years in Prison. Yonhap News Agency.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75851065>
- [7] Y. S. Oh. (January 21, 2021). Corona 'Collective infection' .. Shincheonji 16% Largest single Scale. Nocut News.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72>
- [8] S. W. Park. (July 20, 2021). "Because of the flu"... A confirmed Officer who Hid his Movements, Sent him to the Prosecution. Sisa Journal.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136>.
- [9] J. M. Lee. (April 5, 2021). "It's not intentional," Said Rev. couple, Who Hid their Movements despite Confirmed Coronavirus. mediajeju.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41>
- [10] L. J. Frewer, K. G. Grunert & L. Bredahi. (1998). Consumer Attitudes and Decision-Making with regard to Genetically Engineered Food Product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Presentation of Model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Policy*, 21, 251-277. DOI : 10.1023/A:1006940724167
- [11] J. B. Chung, H.-K. Kim & S. K. Rho. (2008). Analysis of Local Acceptanc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isk Analysis*, 28(4), 1021-1032. DOI : 10.1111/j.1539-6924.2008.01074.x
- [12] D. M. Rousseau, S. B. Sitkin, R. S. Burt & C. Camerer. (1998). Introduction to Special Topic Forum: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DOI : 10.5465/AMR.1998.926617
- [13] J. Mishra & M. A. Morrissey. (1990). Trust in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s: A Survey of West Michigan Manager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19(4), 443-486. DOI : 10.1177/009102609001900408
- [14] S. Atkinson & D. Butcher. (2003). Trust in Manageri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8(4), 282-304. DOI : 10.1108/02683940310473064
- [15] L. Keele.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241-254. DOI : 10.1111/j.1540-5907.2007.00248.x
- [16] D. W. Kim & S. J. Lee. (2008).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8(4), 43-62.
- [17] B. Barber.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 [18] S. C. Craig. (1993). *The Malevolent Leaders: Popular Discontent in America*.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 [19] M. J. Hetherington.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DOI : 10.2307/2586304
- [20] A. H. Miller.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 951-972. DOI : 10.2307/1959140
- [21] J. K. Cha & T. G. Yoo. (2018). Characteristics of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A Case Study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3(1), 167-184. DOI : 10.21807/jnas.2018.03.23.1.167
- [22] J. S. Choi & Y. C. Kang. (2012). Determinants of Trust in Risk Management: A Case of Kori Nuclear Plant.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8(3), 325-358.
- [23] W. A. Gamson.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linois: Dorsey Press.
- [24] J. D. Aberbach. (1969). Alienation and Political Behavi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1), 86-99. DOI : 10.2307/1954286
- [25] R. D.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DOI : 10.1353/jod.1995.0002
- [26] S. J. Kim. (2002). *State Capacity and Economic Statecraft*.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27] S. A. Park. (2006). Perceptions toward Government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2), 73-97.
- [28] F. D. Schoorman, F. C. Mayer & J. H. Davis.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DOI : 10.5465/AMR.1995.9508080335
- [29] R. Wakefield. (2013). The Influence of User Affect in Online Information Disclosure.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22(2), 157-174. DOI : https://doi.org/10.1016/j.jsis.2013.01.003
- [30] S. U. Yun. (2018).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r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8(1), 52-78. DOI : 10.14696/jcs.2018.03.18.1.5
- [31] S. H. Kim & J. K. Kim. (2017). A Meta-Analysis on Privacy Concern in Korean Research. *Korean Management Review*, 46(2), 595-622. DOI : 10.17287/kmr.2017.46.2.595
- [32] P. A. Pavlou, H. Liang & Y. Xue. (2007).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Uncertainty in Online Exchange Relationships: A Principle-Agent Perspective. *MIS Quarterly*, 31(1), 105-136. DOI : 10.2307/25148783
- [33] C. Van Slyke, J. T. Shim, R. Johnson & J. J. Jiang (2006).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and Online Consumer Purchas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7(6), 415-444. DOI : 10.17705/ljais.00092
- [34] S. T. Margulis. (2003) Privacy as a Social Issue and Behavioral Concept. *Journal of Social Issues*, 59(2), 243-261. DOI 10.1111/1540-4560.00063
- [35] C. W. Park, J. W. Kim & H. J. Kwon. (2016). An Empirical Research on Information Privacy Risks and Policy Model in the Big data Era.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21(1), 131-145. DOI : https://doi.org/10.7838/jsebs.2016.21.1.131
- [36] K. Min. (2009). The Impact of Local Residents` Rurality on Policy Acceptance -A Case of Ropeway Establishment in Mt. Halla-. *Korean Governance Review*, 16(3), 53-71. DOI : 10.17089/kgr.2009.16.3.003
- [37] S. W. Hwang, H. J. Kim & I. C. Chang, (2018).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Based on the Survey for the Residents in Pusan, Ulsan, and Kyungnam.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1(4), 135-164. DOI : 10.21331/jprapr.2018.11.4.006
- [38] M. J. Lee, J. S. Jung. & K. S. Park. (2014).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and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on Public Acceptability : Using the Trust of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KHNP) Company as a Mediator.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1(4), 253-279.
- [39] K. T. Lee & J. H. Mok. (2016). The Determinant Analysis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Korean Nuclear Power Policy.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1(3), 55-85. DOI : 10.16973/jgs.2016.11.3.003
- [40] J. H. Mok. (2017). Moderating Effect of Knowledge Level on the Risk and Acceptance Relationship: The Case of Korean Nuclear Polic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6(2), 419-449.
- [41] J. B. Chung & H. K. Kim. (2009).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1, 8-16. DOI : https://doi.org/10.1016/j.landurbplan.2008.11.005
- [42] D. J. Kim , B. H. Chung, J. H. Chang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nd Personal Leve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 Centered on Implications for Building Public Relations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214-238.
- [43] L. Huang, Y. Zhou, Y. Han, J. K. Hammitt, J. B. & Y. Liu.. (2013). Effec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the Risk Perception of Residents near a Nuclear Power Plant in Chin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0(49), 19742-19747. DOI : https://doi.org/10.1073/pnas.1313825110
- [44] C. Starr. (1969). Social Benefit versus Technological Risk. *Science New Series*, 165(3899), 1232-1238. DOI : 10.1126/science.165.3899.1232
- [45] J. Flynn, P. Slovic & C. K. Mertz. (1994). Gender, Race,

-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Risk Analysis*, 14(6), 1101-1108.  
DOI : 10.1111/j.1539-6924.1994.tb00082.x
- [46] M., Greenberg, K. Lowrie, J. Burger, C. Powers, M. Gochfeld & H. Mayer. (2007), The Ultimate LULU? Public Reaction to New Nuclear Activities at Major Weapons Sites.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3(3), 346-351.  
DOI : https://doi.org/10.1080/01944360708977982
- [47] N. K. Malhotra, S. S. Kim & J. Agarwal. (2004).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4), 336-355.  
DOI : 10.1287/isre.1040.0032
- [48] J. K. Kim & D. W. Oh. (2016). The Effect of Privacy Policy Awareness on the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Systems Review*, 18(3), 185-207.  
DOI : 10.14329/isr.2016.18.3.185
- [49] H. H. Min, S. B. Park, J. S. Jung & K. S. Han. (2016). The Factors Affecting Provision Inten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ra.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6(1), 95-117.
- [50] M. Y. Oh, J. M. Choi & H. S. Kim. (2008). Stigma Effect of Technology with Risk: the Impact of Stigma on Nuclear Power o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Products based on Radiation Technology.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2(1), 467-500.
- [51] H. I. Kim & D. S. Han. (2003). The Public's Attitude toward the Use of the Media and Nuclear Power. *Nuclear Industry*, 23(11), 9-20.
- [52] J. Flynn, W. Burns, C. K. Mertz &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DOI : 10.1111/j.1539-6924.1992.tb00694.x
- [53] T. Dinev & P. Hart. (2006).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7(1), 61-80.  
DOI : 10.1287/isre.1060.0080
- [54] G. Bansal, F. M. Zahedi & D. Gefen. (2016). Do Context and Personality Matter? Trust and Privacy Concerns in Disclosing Private Information Online. *Information & Management*, 53(1), 1-21.  
DOI : 10.1016/j.im.2015.08.001
- [55] M. Siegrist & G. Cvetkovich.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19.  
DOI : 10.1111/0272-4332.205064
- [56] Y. C. Shin & C. S. Ahn. (2009). A Study on the Social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Government Policy Capabiliti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13(3), 189-211.
- [57] J. S. Shim. (2009). Trust in Nuclear Power Plant, Perceived Risk and Benefit, and Accepta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8(4), 93-123.
- [58] W. W. Chin. (1998).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Brighton: Psychology Press.
- [59] C. M. Ringle, M. Sarstedt & D. W. Straub. (2012). Editor's Comments: A Critical Look at the Use of PLS-SEM in "MIS Quarterly". *MIS Quarterly*, 36(1), 3-14.  
DOI : 10.2307/41410402
- [60] J. F. Hair, C. M. Ringle & M. Sarstedt.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DOI : 10.2753/MTP1069-6679190202
- [61] J. F. Hair, C. M. Ringle & M. Sarstedt. (2012). Partial Least Squares: The Better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ong Range Planning*, 45(5-6), 312-319.  
DOI : 10.1016/j.lrp.2012.09.011
- [62] Gefen, D. and Straub, D. (2005). A Practical Guide to Factorial Validity using PLS-Graph: Tutorial and Annotated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6(1), 91-109.  
DOI : 10.17705/1CAIS.01605
- [63] C. Fornell & D. F. Larcker.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DOI : 10.1177/002224378101800313
- [64] Sosik, J. J., Kahai, S. S. & Piovosio, M. J. (2009). Silver Bullet or Voodoo Statistics? A Primer for Using the Partial Least Squares Data Analytic Technique in Group and Organization Research.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4(1), 5-36.  
DOI : 10.1177/1059601108329198
- [65]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16).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SEM)*, 2nd edition, Sage, Thousand Oaks, CA

## 오 주 연(Juyeon Oh)

[정회원]



- 2000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사)
- 2004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8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20년 8월 ~ 현재 : 인하대학교 융합

보안e거버넌스센터 수석연구원

- 관심분야 : 융합보안, 스마트시티, 국제인적자원관리(IHRM), Social Network Analysis(SNA)

- E-Mail : jy.oh@inha.ac.kr

서 우 중(Woojong Suh)

[상학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응통통계학과(경제학사)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응통통계학과(경제학석사)
- 2000년 8월 : KAIST 경영공학과(공학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및 산업보안거버넌스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디지털 비즈니스

· E-Mail : wjsuh@inha.ac.kr